

2019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표어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살아 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몸을 위해 그리고 몸 안에서 십자가의 일을 체험해야 한다.

어디든지 몸에 대한 계시가 있는 곳에는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고,
어디든지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는 곳에는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재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2019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몸의 원칙들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삶

메시지 1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성경: 롬 8:4, 12:4-5, 고전 6:17, 12:27, 엡 4:16, 21, 빌 3:10

- I.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롬 12:4-5, 고전 12:13, 27, 엡 1:22-23, 4:16, 골 1:18, 2:19.
- 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고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실재의 영이다 — 요 14:17, 15:26, 16:13, 요일 5:6, 엡 3:16-21, 4:4-6, 12, 16.
- I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엡 4:21), 곧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실지 상태가 그분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 된 것이다 — 요 14:6상, 엡 4:20-24, 갈 2:20, 빌 1:8, 19-21상, 2:19-30.
 - A.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이다 — 엡 4:21.
 - B.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의 반복인 생활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활이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사람들이 되기 위해 주님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있다 — 마 11:29상, 17:5하, 벰전 2:21.
 - C.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는 생활은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다. 이 생활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 안에서 다시 사시는 것이다 — 엡 4:21, 5:30, 고전 12:27.
- IV.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을 살아 내는 것이다 — 엡 4:4-6, 16, 21, 23-24.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이다 — 빌 1:19-21상.
 1. 주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셨는데, 이들은 만형님이신 그분과 함께 위대한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 된다. 이 우주적인 사람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다 — 롬 8:29, 엡 2:15.
 2. 우리를 거둬나게 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시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사신다 — 고전 15:45하, 6:17.
 3. 이러한 종류의 생활이 주 예수님과 정확히 똑같은 우주적인 한 사람,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사는 사람을 산출한다 — 엡 4:21, 24, 요일 2:6, 3:1-2, 4:17.
 - B.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의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며

하나님으로 함께 조성된 하나님-사람들이 사는 생활이다 — 요 14:20, 15:4, 엡 4:4-6, 16, 24, 빌 1:21상.

- C.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그들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한다 — 갈 2:20.

V.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 — 빌 3:10, 고전 12:12-13, 고후 4:10-12, 롬 8:13-14, 12:4-5.

- A.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추구하는 생활이다 — 마 10:38, 16:24.
1.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된 십자가이다 — 갈 6:14, 5:24.
 2. 십자가 아래 있는 생활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들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만든다.
- B.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 — 빌 3:10, 요 11:25, 엡 1:19-20, 3:16, 아 2:8-13.
- C.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이다 — 빌 3:10.
1.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의 중심과 전부이다.
 2.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아야 한다 — 고전 15:31, 고후 4:10-11.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오직 이런 종류의 단체적인 생활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질 수 있다 — 빌 3:10, 롬 12:5, 고전 2:2, 12:27.

V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다 — 롬 8:4, 12:4-5, 고전 6:17, 12:12-13, 27, 엡 2:22, 4:16, 23.

- A.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 요 14:20, 15:4-5, 엡 3:16-21, 4:4-6.
1.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하시어 우리와 한 실체가 되신다 — 고전 6:17.
 2.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질 정도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 — 요 15:4-5, 갈 2:20, 빌 1:19-21상.
- B.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 곧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이다. 하나님께서 행하거나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초점과 관련되어 있다 — 엡 3:9, 5, 1:17, 2:22, 4:23, 5:18, 6:18.
- C. 연합된 영은 하나님과 하나인 영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다 — 요일 5:11, 뱀후 1:4.
1.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사람의 생활, 곧 하나님이며 사람이며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생활을 살 수 있다 — 갈 2:20, 빌 1:19-21상.
 2. 하나님-사람의 생활은 두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생활이다.
- D. 우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산다 — 롬 8:4.